

## 여러분은 대자연의 지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뜻깊은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푸른 숲선도원 여러분들의 활동상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큰 보람과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꿈나무이듯이, 전국의 35,000명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의 대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지킴이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지를 갖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마음과 손끝으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푸르고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명전 (한그루녹색회 명예회장)

##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가 되세요



한 그루의 나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어야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부르고 동물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안식처를 마련합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제몫을 합니다. 나이가 든 고목들은 빨갛은 제공하고 셋노란 초목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하며 먼 훗날에는 석유를 비롯한 광물자원의 요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든 것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여러분은 한그루의 나무들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산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푸른숲선도원들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푸른숲선도원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산림과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울창한 숲이 되려면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푸른숲선도원 각자가 튼튼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푸른숲선도원 모두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최영길 (한그루녹색회 이사)

## I 숲은 미래입니다!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일·인더스·황하문명 등 세계 4대문명은 숲을 모태로 번창하였으나 숲을 파괴하면서 종말을 맞아 오늘날 사막만이 남았다는 교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웰빙’, ‘무한한 상상력의 창의적인 삶’, ‘새로운 경험에 대한 추구’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숲과 자연을 통해 신선하고도 다양한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고, 숲에서만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웰빙이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그루녹색회는 올해에도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성장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행복, 사회적 자산, 더 나아가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더 의미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숲과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진정한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다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숲은 미래입니다!

손영훈 (한그루녹색회 이사)

## I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꿉니다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위 글은 우리나라 ‘산림헌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숲은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24백만평의 숲이 매년 사라집니다.

또한 봄철에 반복되는 산불로 숲이 파괴되고 있으며, 최근에 더 안타까운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잣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하여 숲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숲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삶도 미래도 어려워집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올해는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우리 숲을 배우고 사랑하며,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더욱 더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숲은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최준석 (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장)